

해양경찰 창설 50주년 기념식 연설

친애하는 해양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해양경찰이 창설 5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상을 받으신 분들께도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들어올 때 우렁찬 박수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친근한 느낌입니다. 사회자도 귀에 익은 목소리여서 반갑습니다. 바로 전, 해양경찰 50년을 소개하는 영상물도 참 좋았습니다. 해양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멋있었습니다.

불과 6척의 경비정으로 시작한 해양경찰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249척의 함정과 9천여명의 인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해양수호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바다의 파수꾼으로서 당당한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3년 전 오늘 내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해양경찰 5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역사입니다. 6·25전쟁이 끝나고 북쪽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바다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뻗어갈 때마다 우리의 국력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 길을 해양경찰 여러분이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양경찰 여러분은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우리 바다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동북아 물류중심을 향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친애하는 해양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21세기는 바다의 세기입니다. 생존과 번영의 열쇠로서 바다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바다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바다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바다를 어떻게 지키고 개발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바다의 중요성이 커갈수록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도 더욱 막중해질 것입니다.

해양경찰 여러분은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대응하여 광역경비 체제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주변국의 불법적인 영토침범이나 해상범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기와 함정을 동원한 입체적인 경비로 우리의 주권을 확고히 지켜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재난구호 활동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악천후 속에서도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천후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여러분을 믿고 바다에서 안심하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다의 119'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

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해양경찰만의 특수한 임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랜 숙원인 '해양경찰 학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해양경찰관 여러분,

해양경찰은 지금보다 미래에 더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가는 노력이 해양경찰과 우리 바다의 밝은 미래를 열어 줄 것입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성원하겠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해양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 일류 해양경찰로 정진해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설 50주년을 축하드리며 해양경찰관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